

숲 해설가 양성으로 농가 수익 증대

2011 숲 해설가 양성교육·수료식 개최... 숲 해설 진행기법 등 실질적인 교육 진행



지난 6일 간성읍 장신2리 소동령 마을에서 열린 2011 숲 해설가 양성교육 모습.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는 지난 6일 간성을 장신2리 소동령 마을 체험관 및 인근 숲에서 마을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숲 해설가 양성교육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농촌진흥청테마마을과 산촌체험마을 주민들의 숲 해설 자질을 향상시켜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숲 해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2011 숲 해설가 교육은 소동령마을과 농·산촌 체험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3일 까지 진행됐다.

2011 숲 해설가 양성교육은 김진숙 강릉 생명의 숲 이사 등 5명의 강사로 구성된 숲 생태계의 이해, 숲 해설 체험, 숲 해설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기법 등 10 강좌 40시간에 걸쳐 매주 수요일은 이론 교육, 토요일에는 실습 교육이 실시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에게는 여행의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은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해 농가 수익 증대와 고성관광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5개읍면 그린리더 양성교육

강남일 청정강원 21 실천협의회 사무처장 강의

고성군 녹색생활 작은 실천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지난 6일 장신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5개읍면 5개 그린마을을 대상으로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그린마을 육성을 위해 실시된 이날 교육은 강남일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을 초빙해 4시간에 걸쳐 그린리더 초급과

이날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이 온실가스 줄이기 서명을 시작으로 기후변화개요, 녹색생활실천 및 그린스타트 운동의 이해 등의 강의를 진행됐다.

한편, 5개읍면의 5개 그린마을은 아촌리, 해상리, 자산리, 죽정2리, 원암리 등이며 아촌리와 해상리는 지난 9월 교육이 실시됐고, 죽정2리와 원암리는 12월중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원광연 기자



개업집

백가네 토끼요리전문점

천연재료 먹여 키운 토끼... 한약재 넣고 삶아

지난 3일 거진읍 소재 금수사 우나 옆에 토끼요리전문점인 백가네 식당이 개업했다.

백가네라는 상호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손님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지어졌다.

백가네 식당은 거진읍 송정리 농장에서 토끼 120마리를 칩닝쿨, 콩깍지, 고구마넝쿨, 배추잎 등의 천연재료를 먹여 직접 사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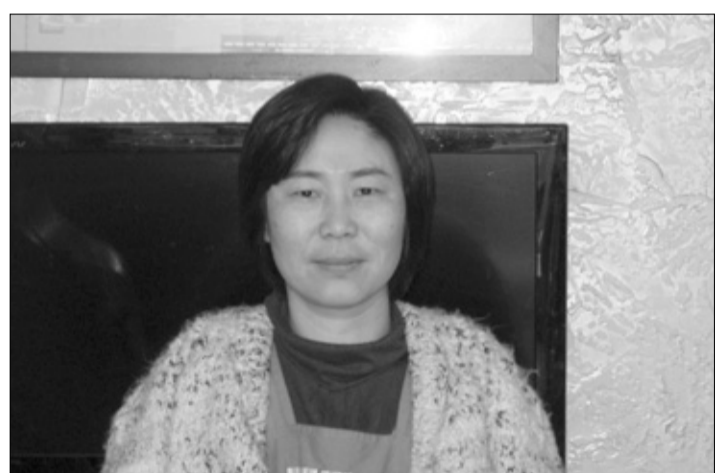
백가네 식당에서는 고기를 손질한 후 잡냄새를 없애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12시간 숙성시킨 후 찜뿌리, 둥글레뿌리, 느릅나무, 겨우살이, 녹각 등 몸에 좋다는 10여가지 이상의 한약재를 넣고 압력솥에 30분 정도 삶는다.

초벌로 삶은 고기를 손님상에 내놓는 토끼요리에 매실, 배, 단감, 키위 등 과일로 만든 양념과

야채를 넣고 끓여 고기가 펍펍하지 않고 쫄깃하며 담백한 맛을 자랑한다.

백가네에서는 간을 좋아하는 손님들에게 토끼간 한접시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백색육인 토끼고기는 불포화지방산으로 콜레스테롤과 식염의 양이 적어 심장병, 당뇨병 환자 등 수술 후 원기회복에 좋다고 한다.



백가네 이옥순 대표는 한결같은 맛으로 토끼요리의 진수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토끼고기를 먹으면 고혈압, 당뇨, 상동맥, 심장질환, 동맥경화 예방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끼고기는 특히 간에 뛰어난 효능이 있어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백가네 이옥순 대표(42세)는 "대부분 고객들이 토끼요리를 겨울철 음식으로 알고 있어 수요의 부족으로 토끼요리전문점이 많이 없는데 고객들이 1년내내 토끼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한결같은 맛으로 토끼요리의 진수를 선보여 토끼요리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메뉴로는 토끼 도리탕, 토끼찜, 토끼 한방전골이 있으며, 가격은 3만5천원부터 4만원까지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은 휴무다.

〈전화 682-3933〉

원광연 기자

경조사·모임·구인·구직·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정보
접수방법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핸드폰 문자 010-2022-2633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